



2023 한국

현대미술비평 집담회

2023 한국 현대미술비평 집담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B1 세마홀

2023.12.15(금)

14:00~17:10

한국 현대미술비평 집담회는 SeMA-하나 평론상을 기념하는 연계 행사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현장을 비평적 관점으로 돌아보고, 한국 미술비평과 담론의 새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장으로 역할 한다.

2023년 한국 현대미술비평 집담회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집담회 1부 <송년회: 올해 우리가 본 것들>은 2021년 SeMA-하나 평론상 제4회 수상자 이연숙이 꾸렸다. 그는 비평가이자 그 경계를 넘어 활동가와 기획자로 실천하는 남웅(2회 수상자)과 이진실(3회 수상자)을 토론자로 초청하여 올해 미술계를 메운 전시와 작가에 대한 ‘애매한’ 이야기를 나눈다.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의 사이에서, 진지한 비판도 ‘인상 비평’도 아닌 그런 각자의 (비평)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할 수 있는 그 모호한 (비평적) 경계들을 점검해본다.

집담회 2부 <세마 코랄의 씨앗과 동료>는 2021년 오픈한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세마 코랄’이 맞이한 3주년을 기념하고 또 다른 가능성과 내일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세마 코랄’은 웹-온라인을 매개로 지식 생산자와 사용자가 서로 교차하며 다양한 형태의 미술 지식을 탐구하고 연결 짓고 확장하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이다. 기획편집자 김진주와 권정현, 그리고 비평가 윤원화, 이여로가 한자리에 모여 세마 코랄이 그동안 뺏어낸 연구의 가지들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과 동료에 대해 논의한다.

1부

송년회: 올해 우리가 본 것들 이연숙 기획, 남웅, 이진실 참여

이연숙은 2021 SeMA-하나 평론상 수상자로 닉네임 ‘리타’로도 활동한다. 2015년부터 대중문화와 시각예술에 대한 글을 여러 지면에 발표해왔다. 페미니즘과 퀴어 예술, 그리고 하위문화에서 발견되는 소수자 문화의 저항적 형식에 관심을 두고 연구와 비평을 지속하려 한다. 콜렉티브 아그라파 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 웹진 『세미나』를 공동 기획·편집했고, ‘프로젝트 OFF’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 강연과 비평을 공동 기획했다.

남웅은 「동성애자 에이즈 재현에 관련된 논의-에이즈 위기부터 오늘의 한국사회까지」로 2011년 제4회 플랫폼 문화비평상 미술비평 부문에 당선되었으며, 2017년에는 「오늘의 예술 콜렉티브-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보지만, 얼마 동안 빛이 있는 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로 2017 SeMA-하나 평론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을 기반으로 동시대 미술과 시각문화 평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적을 두고 성소수자와 HIV/AIDS, 난민 관련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이진실은 독일현대미술학을 공부하고 시각예술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리드마이립스》(성지은 공동기획, 합정지구, 2017) 《미러의 미러의 미러》(합정지구, 2018) 《합창 Dictée: Chorus》(안옥현 주최, 아마도예술공간, 2021)를 기획했다. 콜렉티브 아그라파 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 웹진 『세미나』를 공동 기획·편집했다. 2019 SeMA-하나 평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사랑과 야망: 한국 동시대 페미니즘 미술의 시차들』(미디어버스, 2021)이 있다.

‘미술비평이 없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1985년 최민은 비평가로서 쓴 「최소한의 윤리: 비평가의 자세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압축한다. “70년대 이후 오늘에 걸쳐 미술비평은 관심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 반응을 받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비평가는 있되 비평은 없었다고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그 활동이 보잘것없었고, 생산적인 기여를 했다고보다는 어떤 면, 기존의 제도적 병폐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왔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울 것이 못 된다.”¹ 이어지는 문단에서 최민은 익살스러운 투로 일반 관객에게 비평가란 무엇인지를 요약한다. “[그들은] 대중 비평가들이란 유명한 작가의 주변에서 할일없이 맴돌다가 가끔 신문이나 잡지 또는 전시회 목록의 첫 페이지에 너절하게 찬사나 늘어놓거나 알쏭달쏭한 어휘와 논리로 헛소리나 해대는 좃대 없는 친구들쯤으로 상상하고 있다.”²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최민이 제시하는 대안은 (자신을 포함한) 비평가들이 관념 대신 현장을 더 가까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로 젊고, 막 시작하려는 작가들의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비평가가 “작가들의 모임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을 공유함으로써 작가들과 참다운 연대 의식으로

1. 최민, 「최소한의 윤리: 비평가의 자세에 대하여」, 『시각과 언어2』(파주:열화당, 1985), 86.

2. 최민, 86.

맺어질 수 있다”³ 고 쓴다. 이러한 “연대 의식” 또는 ‘공모 의식’은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비평가들 역시 각종 국가·제도 장치들로 인한 압력에 취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비평가는 단순히 제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안팎에서 자신의 시각과 논리를 (“손가락질”과 “따돌림” “망신” 심지어 “끝장”나는 것과 같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⁴) “주도적”으로 펼쳐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비평가에 대한 멀리 어린 평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최민의 비판은 오늘날의 미술비평계(‘계’라는 것이 있다면)의 상황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편성되고 운영되는 한국(그중에서도 서울)의 미술 현장에서 비평가는 기관 혹은 작가, 기획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텍스트 생산자의 역할에 머물도록 조건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한편 미술비평뿐 아니라 모든 정치적·문화적 영역에 걸쳐 (“참다운”?) ‘공론장’이라는 것이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의 폐쇄적인 ‘피드’로 대체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미술 현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때로 전시장 방문 ‘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행위·실천의 한 극단에는 개별 작가와 전시를 위해서 쓰인 30-50매가량의 청탁

3. 최민, 98.

4. 최민, 96.

원고가 있고, 다른 한 극단에는 인증샷이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는 양극단 사이에 위치한 중간지대들을 알고 있다. 잡지와 웹진과 같은 비교적 형식을 갖춘 매체는 물론이고, 팟캐스트와 유튜브, 블로그와 메일링 서비스와 같은 비교적 애매한 (그래서 자유로운) 매체들 역시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땡땡 콜렉티브’(https://www.instagram.com/00.collective/)의 전시 리뷰를 다루는 메일링 서비스인 ‘땡땡 레터’,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열리는 전시 리뷰와 인터뷰를 발행하는 (역시 메일링 서비스인) ‘하루에 하나’(https://oneactiononeday.com/index.html)가 그렇다. 비평적 개입과 독립적 감상의 사이에서 이뤄지는 이들의 쓰기와 말하기 실천은 그 자체로 유사-공론장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쓰고 말하는 방식을 더 발명해야 하지 않을까? 분명 오늘날 애매해지는 것만큼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송년회: 올해 우리가 본 것들>이라는 다소 사적인 제목의 행사에 ‘비평가’의 “참다운” 자세와 책임에 대해 따져 묻는 최민의 글을 인용한 까닭은 우회적이거나 그의 문제의식과 연결되기 위함이다. 물론 이 행사는 지금까지 내가 앞에서 쓴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예정이다. 행성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로서 때때로 단체의 블로그에 미술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하는 남웅, 그리고 웹진 『세미나』의 공동 기획자이자 종종 미술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는 이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비평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런 만큼이나 자신을 한정 짓는 그 이름의 경계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우리는 모여서 올해 본 것들에 대한 ‘애매한’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의 사이에서, 진지한 비판도 인상 비평도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2부

세마 코랄의 씨앗과 동료 김진주 기획, 권정현, 윤원화, 이여로 참여

김진주는 미술이 남기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술작가로 《Home Works 7》(Ashkal Alwan, 2015) 《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16) 《고향》(서울시립미술관, 2019)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개인전 《지진계들》(합정지구, 2020)을 열었다. 〈팟캐스트: 말하는 미술〉의 메인 진행자(2015~2016)였고, 컬렉티브 아그라파 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 페미니즘·퀴어 감각의 웹진 『세미나』(zineseminar.com, 2019-2021)를 공동 기획·편집했다. 2021년 외부기획자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온라인 지식 플랫폼 《모두의 연구실 ‘코랄’》의 창간을 함께했고, 이어서 학예연구사(2021.10.~2023.10.)로 일하며 편집을 맡았다.

권정현은 미학을 전공하고, 미술 전시 기획자이자 미술 출판물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컬렉티브 옐로우 펜 클럽(YPC)의 멤버로 활동하며, 전시 공간 YPC SPACE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기획한 전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YPC SPACE, 2023), 《민음의 자본》(SeMA벙커, 2021) 등이 있다.

이여로는 지원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블로그, 아티스트북, 해적번역 등을 통해 글쓰기를 시작했다. 각자의 만들기 속에서 가치나 인정, 행동의 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을 ‘아마추어리즘’이라 부르며 예술을 비롯한 모든 만드기에 주목한다. 『긴 끈』(디자인 오은석, 기획:1, 2020), 『시급하지만 인기는 없는 문제: 예술, 언어, 이론』(이동휘와 공저, 디자인 인현진, 미디어버스와 기획:1, 2022), 『미술 기술: 전시 보기와 말하는 매뉴얼』(임가영과 공저, 디자인 남선미, 화이트리버, 2023) 등을 출판하며 연구와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윤원화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문화 연구자, 비평가, 번역자다. 저서로 『껍질 이야기, 또는 미술의 불완전함에 관하여』(미디어버스, 2022) 『그림 창문 거울』(보스토크프레스, 2018)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위크룸프레스, 2016) 등이 있고, 역서로 『사이클로노피디아』(미디어버스, 2021) 『포기한 작업으로부터』(위크룸프레스, 2019) 『기록시스템 1800.1900』(문학동네, 2015) 등이 있다. 부산비엔날레 2022에서 온라인 저널 『땅이 출렁일 때』를 편집했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2021년 10월 공개한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코랄’(<http://semacoral.org>)이 운영된 지 벌써 3년째를 맞았다. 세마 코랄로 줄여 부르는 이 웹사이트에서 그간 100여 편에 이르는 글과 웹 매개 작품이 분화하며 발생했다. 그 수만큼의 필자(생산자), 그보다 많은 수의 독자(사용자)가 미술계의 어떤 지적 생태계를 만드는 지금이야말로 세마 코랄에 대한 진단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집담회를 통해, 기존 필자 중 지속할 수 있는 시간성과 함께하는 생성을 상상하는 실마리가 될 ‘씨앗’과 ‘동료’라는 화두를 일찌감치 던져주었던 윤원화와 이여로, 그리고 기획편집자(매개자) 배턴을 잇는 김진주와 권정현이 모여 세마 코랄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해 본다.

그런데 통상 미술비평을 논해온 집담회인데 이번에는 세마 코랄을 주제로 삼은 까닭이 무엇일지 의아할 수 있다. 그 당위를 말하는 것은 지난 3년간 세마 코랄을 꾸려온 김진주에게 오롯이 주어진 숙제이다. 다른 대화자들은 이 질문에서 되도록 자유롭기를 바란다(그래야 이 자리에서 논하는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 같기에). 웹진일지 지식 플랫폼일지, 이론 무크지인지 미술비평지인지 정체성을 규정하기 어렵고, 사실 독자의 정체나 사용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이 세마 코랄이 미술관의 한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식을 자신의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필수적으로 쓰고야 마는 미술의 생리가 자리한다. 세마 코랄에서 보듯 정립된 미술사, 아방가르드의

감각학, 위반의 문화이론, 최신의 기술매체론 등 세상의 모든 지식은 미술이라는 것의 훌륭한 자양분이 된다. 미술계가 지식의 잡식 기계 같기도 하다면 과장일까? 한편 미술계에서 지식을 향한 욕구는 그것을 흡수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자기 이론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결과 또한 세마 코랄의 한 부분을 중요하게 채운다. 이러한 다차원적 지적 욕구의 결실로 비평이 생산되는 것인데, 그 연결성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비평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벌어진다. 이 간극을 횡단하는 씨앗이 될 동료는 누구일까? 바로 세마 코랄이 자극하고자 했던 연구하는 퍼블릭(public)이다.

윤원화는 문서에 기반한 대화와 도움의 장으로서 세마 코랄의 독특한 장소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세마 코랄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연쇄 반응으로 특징지어지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보다는 학술 저널에 가깝다. 그러나 학술 저널의 지식 생산이 현상을 설명하는 보편적 원리를 체계화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통제·계획하는 도구의 제공에 주력하는 데 반해, 세마 코랄이 연결하는 예술적 생산자들은 기존 지식 체계에 포섭될 수 없는 것들을 보살피는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어떻게 미래를 방치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짐과 현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 모든 문서는 서로 다른 지점들을 연결하는 편지이자, 그들 각자가 위치한 상이한 시간의 노선들을 합선시키는 잠재적인 시간 여행 장치다. 문서를 우리가 가보지 못할 미래 또는 내가

될 수 없는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꾸러미로 대할 때, ‘공공화하다(publication)’라는 본연의 의미에서 출판의 장소인 세마 코랄은 자부심 강한 예술 공동체보다는 차라리 그런 영토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밀수꾼들의 연결망으로 나타난다. 비공식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문지기로서, 밀수꾼들은 무엇을 몰래 들여보내거나 빼돌릴지 판단해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숨길지 궁리해야 한다. 이는 경계의 감시와 대조되지만 교통을 위한 교통을 찬미하는 경계의 파괴와도 구별된다.

이여로는 민주적 상징성을 위한 표어가 아닌 실제 현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마 코랄이 표방하는 ‘모두의 실험실’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념적 해제와 경험적 재구축을 들여다본다. 이여로가 글쓰기를 시작할 무렵 웹 플랫폼이 급증했다. 자주적인 활동 기반이 된 곳들이 있는 반면, 기업 단위의 편승이나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혹은 성폭행 가해자가 운영하는 약탈적 웹진도 횡행했다. “지식과 그 생산자를 생태계의 관점에서 고려”한다는 세마 코랄의 소개에 비취봤을 때 이는 생산적 순환을 어지럽히는 요소였다. 운영 주체가 서울시립미술관인 세마 코랄은 신뢰성 문제에서 벗어난 동시에 추상적인 공공성 이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후 뺏어가는 세마 코랄 글들에 독자이자 필자로 참여하면서 이여로는 글과 지면이 형식적 상호모방을 시도하고, 관심의존성의 새길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 그것은 지식 생산의 계기(“씨앗”)와 과정, 결과가 분리되지 않고 결과물로서

글이 자신의 영향관계를 가시화하며 여기에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경험이었다.

권정현은 새로운 시대의 연결로서 세마 코랄이 내포한 뜻, 즉 산호처럼 다양하고 유연하게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오늘날 동료와 공동체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전의 동시대 미술이 익명의 사람들과 하나의 씨를 공유하며 모종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느낌을 주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동시대 미술은 잘 그려지지 않는 경계로 존재한다. 이전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기 어려운 시기에 세마 코랄은 다른 종류의 연결과 공동체를 꿈꾼다. 그것은 키워드와 키워드로 연결되는 연약하고 느슨한 관계이고, 관심사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이며, 확고한 카테고리 분류되지 않는 애매하고 의외인 것들의 모임이다. 하나의 중심으로 모두가 모여들기를, 모두가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이야기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평평하고 넓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들의 경계가 모호한 모임을 상상한다.

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학예총괄
정소라 학예연구부장

기획총괄
전소록 수집연구과장

기획 및 진행
최지나, 이승은 학예연구사
박지연 코디네이터

외부기획
김진주, 이연숙

홍보
봉만권 고객홍보과장
김서영 주무관
김채하 주무관
장영은 주무관
이문희 주무관
임재욱 코디네이터

행정
이영순 총무과장

시설
박지영 시설과장
허정민 주무관

후원
하나금융그룹

후원회
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 세마인
현선영 실장

교정·교열
김기
영상 및 사진
이미지쥬
디자인
워크룸
홍보물 설치
그라운드 57
인쇄
세결음

발행인
최은주
발행일
2023. 12. 15.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2023 서울시립미술관

이 자료에 실린 글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MA-하나
평론상
SeMA-Hana
Art Criticism
Award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하나금융그룹